

단편소설

무지개

백종익

안개가 수면 위에 앉았다. 배가 수면을 가르고 나가자 잿빛 안개가 뱃머리 좌우로 흩어졌다. 배의 후미에서 이내 다시 모인다. 안갯속을 튀어나온 붉은 부리새 한 마리가 수면을 스치듯 배 주위를 두 세바퀴 선회하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남자는 이마에 구슬땀이 맺힌 채 연신 노를 내 쫓고 있다. 뱃전에 솟은 은색 물방울이 이따금씩 날아와 남자의 얼굴에 부딪치며 파편처럼 뿔겨나간다. 큰 날개 새들이 안개를 몰아내며 배의 후미를 쫓는다, 새들은 남자의 머리 위를 낮게 선회하며 뱃고물을 치솟는 바람에 날개를 펼치고 서로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유영을 즐기듯 한다. 남자의 어깨너머 수평선 멀리서는 빛이 안개의 흐름에 따라 춤을 추듯 명멸하고 있다.

허리를 끈쑥세운 남자가 얇은 기침을 대기에 뱉어낸다. 빛은 다시 나타나겠지, 하며 남자는 생각한다. 노 결이의 쇠소리가 멈추자 남자의 발치에서 옆으로 웅크려있던 여자가 두 눈을 뜬다. 여자는 한기를 느낀 듯 느슨해진 목도리의 매듭을 두 손으로 고쳐 여민다. 털목도리 사이로 빠져나온 귀퉁 머리카락이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린다. 여자가 춤다고 말하고 남자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 이어서 한 파고의 물결이 뱃전을 때린다. 여자가 다시 말을 이으려고 할 때, 빛이 조금 전에 다시 나타났으며 남자가 말한다. 여자가 몸을 일으켜 배의 노결이 쪽가로 판자에 등을 기대어 앉는다.

그렇구나, 빛이 보였구나, 여자가 말한다. 맞아, 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남자가 말한다.

나도 보았어야 했는데, 하며 여자가 말한다.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어젯밤 칠흙 같은 안갯속에서 잠깐 동안 그 빛을 볼 수 있었어, 하지만 그 후로는 볼 수가 없었지 뭐야, 여자가 말한다.

여자의 가는 입술가에서 붉은 기털이 하늘거린다.

맞바람이 여자의 얼굴에 닿자, 한쪽 자락이 풀린 목도리가 여자의 어깨를 벗어나 흔들린다, 길고 검은 그림자가 물결 위에서 일렁인다, 새들은 출렁이는 그림자를 쫓으며 낮게 날다가 뱃전을 솟은 바람에 두 날개를 맡기며 새들은 곧 낮은 구름 속으로 모습을 감춘다.

여자는 불룩한 아랫배에 한 손을 가져가며 남자에게 말한다.

방금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며 여자가 말한다.

그녀석도 급하긴 한 모양이네, 하며 남자가 말한다.

남자의 입가에서 뻗어진 하얀 입김이 잿빛 안개에 파묻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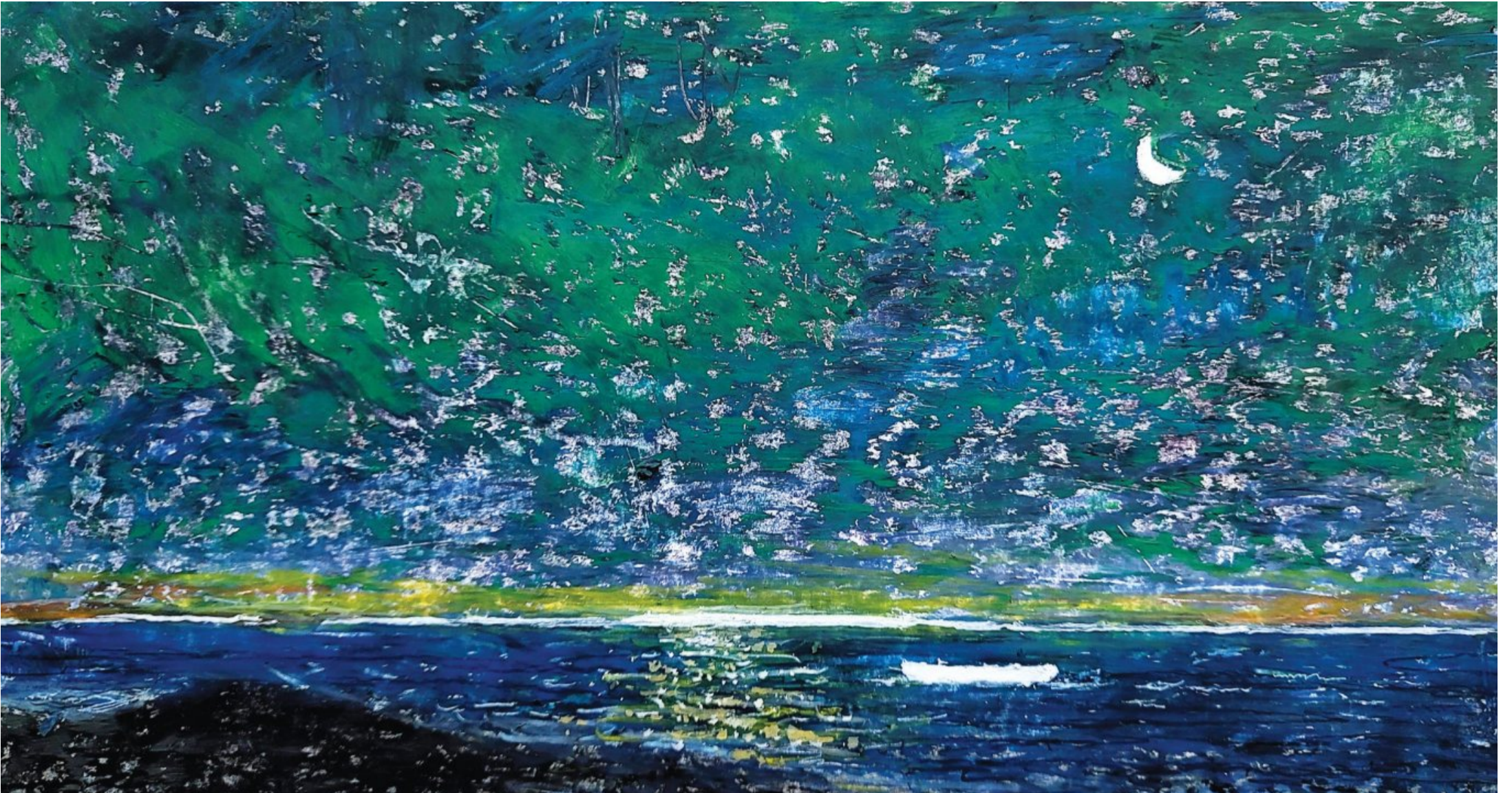


그림 = 임남진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제35회 원진미술대상 특별상(2019), 제19회 광주미술상(2013), 하정웅미술상(2012), 제4회 신세계미술제 장려상(2001)
 ▲광주시립미술관 제6기 북경창작센터 입주 작가(2014) ▲광주신세계갤러리, 서울 헤럴드아트데이 초대전 등 개인전 다수

여자아이라면 「강」이라고 이름 부르고 싶어, 남자가 말한다.

강은 대지를 품어주지 않아? 넉넉한 마음으로 이 강이 우리의 섬을 보듬어 주었듯이 말이야, 남자가 말한다.

이곳 섬을 둘러싸고 있는 강물이 어디서 흘러왔겠어, 남자가 말한다.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기를 바라, 하며 여자가 말한다.

빛을 계속 뿜어내고 있는 곳이라면 아마도 그곳은 엄마의 젖 같은 강물을 쏟아내는 그런 곳일거야, 하며 남자가 말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어깨 위에서 흔들리는 밤

지금 배의 방향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짙은 안개가 우리를 막아서고 있어, 하며 여자가 말한다.

여자가 아랫배를 두 손으로 쓰다듬는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에겐 조금만 참으렴, 하며 말한다. 그래, 아기가 태어날 때는 저 빛을 우리가 마주할 때쯤이겠지, 하며 남자는 생각한다. 아랫배를 힘차게 발길질하는 아이를 두 손으로 보듬은 여자도 같은 생각을 하는 듯하다.

그곳에 도착하면 빛은 우리를 반겨줄 것이 틀림없어, 하며 남자가 말한다.

맞아, 그럴 거야, 그곳에서 우리는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럴 것이 틀림없어, 하며 여자가 말한다.

그곳은 넉넉한 빛을 내는 만큼 사람들 모두가 마음씨도 고을 거야, 여자가 말한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보내주는 곳이잖아, 또 돌들 틈 사이에서 풀들이 잘 자라게 비구름도 실어 보내주었지, 남자가 말한다.

이때, 배의 고물 쪽에서 작은 흔들림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배는 먼저 이물 쪽이 진행 방향을 벗어나더니 차례로 후미 쪽도 방향을 옆으로 튼다,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소용돌이 물살에 갇힌 배는 앞뒤가 꼬리물기를 하듯 제자리를 맴돌기만 하고 있다. 배 밑부분이 무엇인가에 부딪친 것인지, 물밑의 소용돌이에 의한 것인지, 소용돌이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남자와 여자는 뜻밖의 처한 상황에 당혹한 표정을 감출 수 없다. 남자가 배의 후미 쪽을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지만 납작 엎드린 듯이 수면을 덮고 있는 안개 탓에 물밑의 일을 지금은 알 길이 없다. 이따금 한 번씩 뱃전을 부딪는 파도가 허공에 은색 파편을 흩뿌린다.

이곳은 물이 깊은 곳일 텐데, 남자가 말한다. 귀 기울여 잘 들어봐, 여자가 말한다.

잠 전부터 소리를 일으키는 곳은 물밑이야, 여자가 말한다.

수면 아래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해, 하며 여자가 말한다.

물살이 뱃전에 부딪치는 소리는 아니야, 여자가 말한다.

소용돌이가 빨아들인 안개가 배를 서서히 휘어 감는다. 언제부터인가 나타난 큰 날개를 가진 새들이 남자와 여자의 머리 위를 낮게 날으며 선회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의지를 시험이라도 하는 듯한 이런 상황을,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아서려 하는 것이 대체 뭘까, 하며 생각한다.

저기 낮게 깔린 구름 아래를 좀 봐, 여자가 말한다.

빛이 나타났사 사라지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저쪽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야, 하며 여자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말한다.

그래,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만 해, 하며 남자가 말한다.

하지만, 뱃머리가 옆으로 밀려나 쫓겨갈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군, 남자가 말한다.

남자는 양손으로 노를 힘껏 당겨본다. 하나, 두, 셋, 세, 넷 세어가며 어깨에서 손목으로 힘을 모아 본다.

여자는 아랫배의 고통이 점점 더하고 통증이 반복적으로 몰려오자, 노결이가 달린 가로 널판 벽에 등을 기대어 앉아 큰 호흡을 대기로 뱉어낸다, 그때마다 아랫배를 받쳐 든 두 손이 부풀어 오른다.

빛이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안개에 다시 파묻힌다.

빛은 또 나타날 거야, 그때 다시 방향을 확인해 보면 돼, 남자가 말한다.

하얀 빛이 붉게 보일수록 그곳이 머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여자가 한 손으로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그때까지 배 주위를 둘러싸던 안개가 남자와 여자의 등 뒤로 빠르게 빠져나간다. 짙은 안개는 한 파고의 큰 물결이 지나가자 바람과 함께 멀리 사라진다.

소용돌이가 멈추자 노결이의 부드러운 쇠소리가 배 안팎을 났다. 배는 조금 전 빛이 명멸했던 방향으로 조용히 수면을 가르고 나아간다. 구름 너머로 흩어졌던 새들이 어느새 몰려와 배를 쫓는다. 새들은 짧은 곡선을 허공에 그으며 서로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듯 유유히 배위를 선회하고 있다. 물위를 빠르게 솟은 한 쌍의 새가 서로 부리를 부딪치며 하늘 높이 떠 오른다.

우리가 결국 해낸 거야, 남자가 말한다.

돌이켜 보면 언덕에서의 삶도 광창았지, 남자가 말한다.

그렇지만 일생을 그곳에서 지내기에는 우리에게 가진 꿈은 많았어

뱃속의 아기도 목을 죽여야지, 당신이 많이 힘들 거야, 하며 남자가 말한다.

여자와 남자가 물을 서로 나누어 마시며 갈증을 풀자 여자의 뱃속의 아기도 움직임이 조용한 듯하다.

해가 섬의 언덕을 넘어간지도 한참 되었겠네, 여자가 말한다.

그럼, 머리 위의 별들을 봐, 그리고 우리가 떠난 섬의 언덕 위에는 지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 하며 남자가 말한다.

우리가 처음 그 언덕에서 만났었지, 여자가 말한다.

그때 머리위로 쏟아져 내려오는 별들을 보았어, 여자가 말한다.

언덕위 별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었어, 여

자가 말한다.

우리가 돌부리를 비껴 내려올 때 언덕 위로는 해가 막 넘어가고 있었어, 어두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때였지, 그때도 별들은 우리 등 뒤를 쫓아오고 있었지, 하며 남자가 말한다.

강어귀에 대어놓은 배는 별빛을 받고 있었지, 우리는 한시도 배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어, 우리는 한 걸음에 언덕을 내려오듯이 하지 않았어? 남자가 말한다.

해는 막 저서 기울었고, 강에서 곧 불어닥칠 거센 바람을 피할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 남자가 말한다.

돌부리에 발을 부딪기도 했지, 역새들은 우리를 향해 달려들 듯이 했었어, 남자가 말한다.

또, 큰 바위 두 개가 있는 고개를 돌아 내려와야 했거든, 하며 여자가 말한다.

풀밭에는 갓 태어난 새들이 동지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 여자가 말한다.

알을 품고 있는 새들을 피해야 했거든, 여자가 말한다.

그래, 그때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결심을 꺾으려 들었지, 하며 남자가 말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잖아, 이 배에 말이야, 그 언덕을 결국에는 떠난 거라고, 여자가 말한다.

우리가 결국 해낸 거야, 남자가 말한다.

돌이켜 보면 언덕에서의 삶도 광창았지, 남자가 말한다.

